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 조풍류 고수의 판소리 한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 백화점-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 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
(옛 수도극장, 스키라극장)-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채신기념관-원서공원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배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문학의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블카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
회현동 은행나무-*퓨전 국악창작그룹 블랙싸인 국악공연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호재 초등학교-낙산 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 문학관

13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백사실 계곡-*김명남 명창과 조풍류 고수의 우리가락 여흥공연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장)-서울시 의회(옛 부민관)-서울시립미술관(옛 경성재판소)-덕수궁(영성문터)-
적선동(옛 적선동 파출소 터)-정계광장-종각네거리(옛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롯데백화점, 롯데호텔(옛 반도호텔, 아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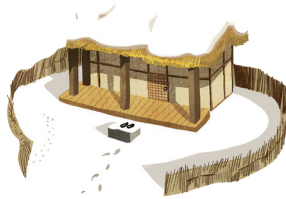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정독도서관-서울교육박물관-윤보선 가옥-건준 옛 터(보현빌딩)-인촌고택-중앙고등학교-
삼청공원입구-총리공원-청와대 무궁화 동산

제16회 손장순의 『한국인』

코스 순서

- ① 안국역
- ② 정독도서관
- ③ 서울교육박물관
- ④ 윤보선 가옥
- ⑤ 건준 옛 터(보현빌딩)
- ⑥ 인촌택
- ⑦ 중앙고등학교
- ⑧ 삼청공원입구
- ⑨ 총리공관
- ⑩ 청와대 무궁화 동산



▶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의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잠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란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회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갈-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등학교	이소영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 불가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예술가의 집-한무속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도-청진동-관훈동-윤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장)-서울시 의회(옛 부민관)-서울시립미술관(옛 경성재판소)-덕수궁(영성문터)-적선동(옛 적선동 파출소 터)-청계광장-종각 네거리(옛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롯데백화점, 롯데호텔(옛 반도호텔, 아서원)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정독도서관-서울교육박물관-안국동 윤보선 가옥-건국준비위원회 옛터(보현빌딩)-인촌고택-중앙고등학교-삼청공원 입구-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연보 및 작가 소개

연보

▶ 1935년

손재승과 민보경의 1남 4녀 중 4녀로 서울 출생.

▶ 1954년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1958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단편 「입상」과 「전신」이 현대문학에 추천돼 등단

▶ 1961년

최명섭(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결혼.

▶ 1965년

서울대학교 불어강사. 최명섭과 이혼

▶ 1969년

한양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임강사.

▶ 1970년

여류문협 이사.

▶ 1971년

한불문화협회 이사.

▶ 1973년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이사.

▶ 1974년

프랑스 소르본느대학원 연수.

▶ 1975년

한양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 1976년

한양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 1981년

언론인 임승준과 재혼

▶ 1983년

한양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1985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연수.

▶ 1988년

한양대학교 문과대학 대학원 학과장.

▶ 1995년

도서출판 문화공간 대표, 한국여성정치연맹 이사, 여류문인협회 이사, 국제 펜클럽 한국 본부 이사.

▶ 1996년

여성문학지 『라벨룸』 창간, 편집인 주간.

▶ 1997년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 2014년

별세(향년 79세)

[상호]

1967년 제4회 한국여류 문학상 《한국인(韓國人)》

1996년 제12회 한국펜클럽문학상 등

[소설]

- 「입상(立像)」, 『현대문학』, 1958.1, 단편.
- 「전신(轉身)」, 『현대문학』, 1958.12, 단편.
- 「배리(背理)의 심연」, 『현대문학』, 1959.3, 단편.
- 「증언」, 『현대문학』, 1960.3, 단편.
- 「궤도」, 『현대문학』, 1961.2, 단편.
- 「설(雪)」, 『여원』, 1961.12, 단편.
- 「공황」, 『현대문학』, 1964.1, 단편.
- 『한국인』, 『현대문학』, 1966.1-1967.7, 장편.
- 「알피니스트」, 『현대문학』, 1966.5, 단편.
- 「바람개비」, 『신동아』, 1968.1, 단편.
- 「우울한 한강」, 『사상계』, 1968.6, 단편.
- 「통닭과 포도주의 향연」, 『신상』, 1968.9, 단편.
- 「대화」, 『현대문학』, 1969.1, 단편.
- 「12시」, 『월간문학』, 1969.4, 단편.
- 「유학(留學)」, 『현대문학』, 1970.1, 단편.
- 「공지(空地)」, 『월간중앙』, 1970.9-1971.8, 장편.
- 「선비의 후예들」, 『한국문학』, 1974.3, 단편.
- 『세화의 성』, 문이사, 1976, 소설집.
- 「우울한 빠리」, 『현대문학』, 1976.1, 단편.
- 「빈 청사진」, 『신동아』, 1976.3, 단편.
- 「골동품」, 『한국문학』, 1976.3, 단편.
- 「막(幕) 내리다」, 『세대』, 1976.8, 단편.
- 『「고슴도치」』, 『문학사상』, 1977.2, 단편.
- 「불타는 빙벽(冰壁)」, 『한국문학』, 1977.3, 단편.

- 「로스엔젤리스 총각」, 『현대문학』, 1977.4, 단편.
 『심씨일가의 사람들』, 태창출판사, 1978, 소설집.
 「개와 정승」, 『현대문학』, 1978.12, 단편.
 『여각하』, 지인사, 1979, 장편.
 「깨이지 않는 잠」, 『한국문학』, 1979.8, 단편.
 「빙벽(氷壁)에 핀 설화」, 『현대문학』, 1979.11, 단편.
 「거대한 물결」, 『월간문학』, 1980.1, 단편.
 「무상(無償)의 외출」, 『현대문학』, 1980.10, 단편.
 「낮과 밤의 신(神)」, 『문학사상』, 1980.11, 단편.
 「고독한 대화」, 『월간문학』, 1981.2, 단편.
 「살아있는 신화」, 『현대문학』, 1981.8, 단편.
 「삶과의 뜨거운 악수」, 『월간문학』, 1982.1, 단편.
 「시차(時差)의 변수」, 『문학사상』, 1982.6, 단편.
 「야망의 덧」, 『현대문학』, 1982.7, 단편.
 「행복과 불행의 거리」, 『월간문학』, 1983.7, 단편.
 「뿌리 없는 가지」, 『현대문학』, 1983.9, 단편.
 「단독 등반」, 『문학사상』, 1983.11, 단편.
 「화려한 변신」, 『시문학』, 1983.11, 단편.
 『도시일기』, 문예출판사, 1984, 소설집.
 「이대로의 긴 잠을」, 『한국문학』, 1984.9, 단편.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현대문학』, 1985.5, 단편.
 「허수아비와 근사치(近似値)」, 『문학사상』, 1987.1, 단편.
 「절규」, 『문학정신』, 1987.1, 단편.
 「제로섬 인생」, 『현대문학』, 1987.3, 단편.
 「꿈을 사는 남자」, 『동서문학』, 1987.6, 단편.
 「허상과 실상」, 『한국문학』, 1987.9, 단편.
 「정상이 보인다」, 『문학사상』, 1988.3, 단편.
 「귀머거리」, 『현대문학』, 1988.8, 단편.
 『야망의 여자』, 문학과사상사, 1991, 장편.
 『배반의 원리』, 청아출판사, 1993, 장편.

『돌바람』, 삶과꿈, 1995, 장편.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문화공간, 1999, 장편.
『사라진 로그하우스』, 『현대문학』, 2003.3, 단편.
『작두』, 범우사, 2004, 소설집.

[수필]

『이를 수 없는 서원』, 문화공간, 2001, 수필집.

작가 소개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불문과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원에서 현대 프랑스 소설을 연구했으며, 한양대학교 불어불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1969-1991). 단편 《입상》과 《전신》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데뷔한 그는 인간 심층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의 실체를 깊고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형상해 왔다. 여성 작가로는 드물게 욕망의 핵심인 애증과 실존의 문제를 사회성 짙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함께 치열하게 다루어 온 그는 일찍이 화제의 베스트셀러 《한국인》, 《공지》, 《세화의 城》을 통해 장편 작가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그 밖의 주요 작품으로는 《심씨 일가의 사람들》, 《야망의 여자》, 《돌바람》, 영역본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A Floating City on the Water》 등이 있으며, 중단편 소설집으로 《대화》, 《불타는 빙벽》, 《절규》, 《도시일기》, 《허수아비와 근사치》, 《두 개의 얼굴》, 《악속》, 칼럼집 《이룰 수 없는 서원(誓願)》, 장편 《작두》 등이 있다. 도서출판 문화공간 발행인과 《리플룸》 편집인 겸 주간을 역임했고, 한국여류문학상, 한국팬클럽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손장순은 근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변동을 여성 지식인의 눈으로 날카롭게 파헤쳤다. 그녀는 전후 한국의 문화 담론을 강타한 전후파(戰後派) 여성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녀가 그려낸 전후파 여성은, 현대 여성을 정조 관념이 없고 타산적이라고 폄하하는 가부장제 담론과 구별된다. 서구 문명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전후파 여성을 부덕(婦德)을 넘어서 개인의 윤리를 추구하는 신인류로 표상했기 때문이다.

손장순은 프랑스 문학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한국적으로 문화번역한 작가이다. 불문학자로서 실존주의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사상을 소개하고, ‘위기의 여자’를 번역했다. 또한 한국 문학사에서 드물게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의 서사를 선보였다. 『한국인』, 단편 『우울한 파리』, 『미세스 마야』 등에는 한국인 서구 유학생이나 한국 내 이방인이 등장한다. 이 작품들은 서구를 참조 대상으로 삼아 한국의 졸속 근대화 양상을 비판하는 한편, 선진국/후진국, 서양/동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주변의 위계적 이분법을 비튼다.

손장순은 1965년에 아들을 하나 둔 채 이혼한 후 1985년 언론인 임승준과 재혼했다. 1996년 한양대를 퇴임한 후 문예지 ‘리플룸’의 발행인 겸 편집자로 활동했다. 한국소설분과협회·한국불문화협회·한국여류문인협회·국제펜클럽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최고위원을 지냈고, 한국여류문학상, 국제펜클럽 소설문학상, 유주현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1년 모교인 서울대에 20억 원을 기부했다. 이듬해 서울대에서는 손장순 부조(浮彫) 제막식 및 평전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2014년 타개했다.

▶ 작품세계

손장순의 문학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자. 손장순이 대학에서 불문학을 통해 습득한 서구 문화에 대한 지식, 취향, 기준 전반을 '교양'으로 규정한다. 이때 교양은 한국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비투스인 동시에 만연한 속물성에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자원이었다. 서구발 교양은 손장순이 급격한 변화와 발전 중에 있던 당대 한국사회를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하였다.

1950년대 후반 초기 작품을 통해 서구적 교양에 기반한 새로운 여성 주체의 기획과 실패를 다루었다. 한국의 전후를 배경으로 직업을 가진 지적인 여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반도호텔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과 사랑에 전념하였다. 당대 전후 사회에서는 이들 새로운 여성을 '아프레 걸'로 통칭하며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비판하였다. 하지만 손장순은 작품 속 여성 인물을 통해 사회의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새로운 여성 주체를 기획하였다.

창작의 침묵을 거쳐 1965년에 발표된 일군의 단편을 통해, 손장순은 출세를 목적으로 삼으나 실패하는 속물적인 인간을 주인공으로 채택한다. 이 인물들은 교양이 없거나 교양의 겉모습만을 모방하는 공통점이 있다. 속물성의 발현은 교양의 원산지인 미국 출신의 인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는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국적 자체가 교양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손장순의 1960년대 중후반 작품을 대상으로 당대 한국 사회의 속물성을 젠더적 관점에서 논한다. 『한국인』(1966~69)은 손장순의 출세작이다. 이 소설의 서문에서 작가는 “8·15와 6·25를 계기로 밀물처럼 들어온 서구 문명과의 혼합 속에서, 자기의 것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남의 것도 소화시키지 못한” 한국인의 정체를 밝히려겠다고 썼다. 그녀는 이상화되어온 남성성의 베일을 벗기고 그 허약함을 포착하는 식의 급진성을 보인다. 작중 남성들은 1960년대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속물화의 양상 속에서 부와 권력을 얻지 못해 열등감에 시달린다. 반면 여성들은 근대화의 허위를 꿰뚫어 보고 주체적 개인으로 서려는 실존주의자이다.

『한국인』은 1960년대 초 급격히 변화한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유학생의 표상이다. 유학생들

은 ‘교양’이라 할 지성을 갖추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하거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불문과를 졸업한 주인공 희연은 가정에 헌신하길 바라는 미국 유학생 출신의 문희와 갈등을 빚는다. 손장순의 다른 작품에서는 선진국에서 생활한 후 귀국하여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겉으로는 서구적 교양을 추구하지만 그 자신이 가진 속물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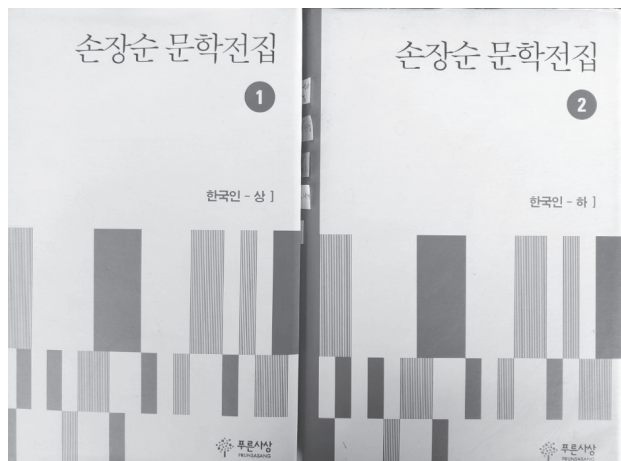
『공지』와 『세화의 성』에서는 서구 ‘교양’이 예술적 소양으로 구체화된다. 한 인물의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조예는 곧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이는 심미적인 가치의 추구로서 미적 모더니티라는 대안을 기획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양’을 갖춘 여성인물은 이러한 기획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감각을 지닌 상대에게 끌려, 결국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파국을 맞이한다.

손장순의 1974년 프랑스 유학 체험 후 집필된 기행문과 『우울한 빠리』를 통해 작가가 내적으로 도달한 탈식민주의적인 시각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처음 한국을 떠난 세계여행에서 작가는 제1세계에 대한 찬양과 제3세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편견을 드러낸다. 유학체험 후 집필된 『우울한 빠리』에서는 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던 한국인 여성 유학생 묘선이 프랑스, 알제리, 튀니지인과의 각기 다른 교류를 통해 자기 안에 내재한 식민성을 자각한다.

1970년대 후반의 작품들은 작가가 ‘이상향’으로 간주한 1세계를 대신할 새로운 ‘지향’을 탐색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타산』과 『골동품』에서는 금전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간절히 추구하지만 그것의 획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집필된 산악소설에서 작가는 사회로부터 거리를 확보한 자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탐색하였다. 당대의 등반활동으로부터 취재한 산악소설에 등장하는 ‘히말라야’는 아직 인간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거대한 실체 그 자체로 형상화된다.

손장순은 ‘미적 모더니티’의 기획을 통해 교양 있는 여성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1960-70년대에 급격한 변동을 이룬 한국사회의 속물성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의 문학은 교양과 젠더의 관점에서 당대의 가부장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그의 교양은 제1세계 서구를 원산지로 삼는 것이었기에 필연적으로 서구중심적인 ‘식민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유학을 통해 손장순은 서구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교양이 가진 모순을 발견하였다. 이후 손장순의 문학은 산악소설을 통해 삶과 죽음의 존재론적 고민으로 옮겨가며 한국 사회의 속물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 '한국인'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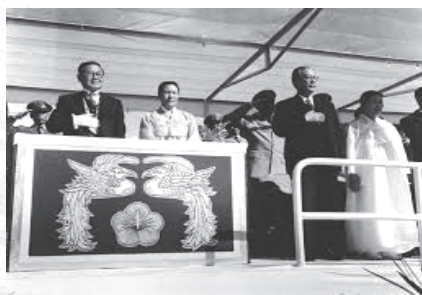


장편소설. 1966년 1월 <현대문학>에 연재한 작품. 고민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 속에 어떤 탈출구를, 어떤 도표를 제시해보려는 노력으로 쓴 야심작이다. 여러 쌍의 젊은 남녀들이 등장한다. 주인공 신희연과 문취, 희연의 오빠인 관희와 부산에 사는 제주도 출신의 헤미, 그리고 한선과 소라 등. 이들의 대부분은 대학을 나오거나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밝은 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항상 응달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밝은 태양을 향해 목을 길게 뽑고 손짓을 하지만 어떤 희망적인 찬스가 오더라도 그것은 또 멀지 않아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면적인 의식의 세계만 점점 더 팽창해가고, 그것이 균형을 잃어 외부로 노출되면, 자기와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설정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다. 이렇게 탈적선인 형태로 일그러지고, 창백한 얼굴로 태양을 갈망하는 나무들, 이 모든 공통적인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작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해서 『한국인』이라는 데다 두고 있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적을 두고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운명 속에 밀폐되었기 때문에, 이 울타리 밖으로 완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 『한국인』과 1960년대 서울

서울의 메신저로서의 손장순





손장순은 서울성이란 도시성이 몸에 배인 작가로 1984년 창작집 『도시일기』를 출간할 만큼 서울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한국인』에서 주요 인물들은 가회동, 무교동, 조신포텔, 반도호텔, 국제호텔, 미국대사관, 서울신문사, 안국동, 시청앞, 청와대, 삼청공원, 남산, 신촌, 세검정, 북한산 등을 주무대로 1960년대 초의 불안정하고 부조리하며 불운한 한국사회 엘리트들의 사랑과 야망, 좌절과 분노, 민낯을 담은 스토리를 이어 간다.

손장순은 서울을 병든 도시로 생각하면서도 체질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서울을 잘 아는 작가란 느낌이 들만큼 그의 서울에서의 도시경험은 소설을 읽는 이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된다.

차는 장충동 뒷길로 해서 남산 팔각정으로 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고 있다. 차창밖에는 앙상한 나목과 청량한 대기가 겨울날의 삭막한 계절감을 불어 넣어 준다... (중략) ... 희연은 쇠줄을 끄르자마자 쏜살같이 내뺄는 보스를 따라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간다. 매일 아침 보스를 데리고 삼청동공원을 도는 것은 그녀의 아침 일과다. 가회동 막바지에 올랐을 때 지는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양옥들이 선명하게 희연의 눈에 띈다. 그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경쟁을 하다시피 나날이 늘어가는 화려한 실내장식을 갖춘 다방들을 상기한다. 6.25 전쟁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것이 있다면 소비성

생활수준과 바로 이 건축분야가 아닐까.

그러나 국가 경제나 시민경제는 이런 표면과는 너무 판이하다. 걸치레의 모든 것이 외래의 수입품이듯이 한국의 경제는 자주성 없이 액면 그대로 경원에 의지하고 존속되고 있지 않은가.

- (한국인(상), 53쪽, 57쪽)

『한국인』은 1966년 1월호부터 1967년 7월호까지 <현대문학>에 연재된 손장순의 최초 장편으로 한국전쟁 후 급속하게 미국화 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이란 도시의 아노미 현상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서사화한 작품이다. 주로 미국에 유학 갔다온 인물을 중심으로 미국화와 한국적 전통의 이중 갈등 속에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국인』 속 서울은 해방 후, 한국전쟁, 제1공화국시절, 장면정권, 4.19혁명, 5.16 군사 쿠데타를 거치면서 과도기 정권하에서의 혼란한 경제, 사회, 정치 그 자체이다. 전쟁 후의 서울은 부정과 부패로 오염되고 추한 모습으로 얼룩진 중심도시로서 권력과 돈, 탐욕과 사기, 모함이 만연하여 순수와 미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으로 보여진다. 혼란과 피폐한 사회, 정치현실을 보습을 보이는 서울에 대해 전해자는 ‘도넛 콤플렉스’(스텐리에브 & 휴즈, 전쟁후의 미국도시를 특성화하는 말로 도넛의 구멍은 부패된 중심도시이고 주변의 원은 번성하고 성장하면서 근교도시와 지역을 말하는 용어다)로 설명했다. 『한국인』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정치적,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개인 의식과의 관계에서 텍스트화한 수작이라고 하겠다.

‘도넛 콤플렉스’의 서울

서울의 외면적 모습은 도넛의 둥그런 원처럼 달콤한 도시풍물 그 자체이다. 소설 속에 나오는 회, 수, 청자, 상록수, 진, 양지, 초원다방 등의 **다방문화** 중심으로 반도, 조선, 국제, 사보이, 스카이라운지 등 **호텔문화**와 을지로, 소공동, 회현동 등 옛 서울 도심 거리가 인물들이 항상 배회하는 활동 무대로 그려진다. 주인공 희연의 말을 따온다면 서울은 장미 빛 인생이고, 서울생활은 아름다움과 희열이 넘치는 핑크빛 앙상블이다.



『한국인』에서 서울은 전쟁 후유증과 연속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 위기, 정치혼란 상태에서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특히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인물들은 이러한 한국사회에 대해 정신적, 심리적 소외 의식과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체험이 텍스트 전체에 걸쳐서 사실적으로 묘사됐다. **서울은 술수와 음모가 뒤끓는 아비규환의 도시**로 ‘후진국, 불운한 시대’라는 언어적 표징을 반복한다.

겉은 윤품이 나고 풍성하나 속은 빈곤과 적자의 지속, 그나마 AID 원조 자금을 도로 몽땅 뺏어가려고 벌떼 같이 모여든 술한 외국인 상사들, 계획성 없는 경제행정, 자금자족적이 안 되는 원자재(原資材), 산업부진, 이래저래 팔리고 몰려서 뗏뗏지 못한 증원만을 외친다. 그래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하던 동란시에는 반공 투쟁이란 명분아래 모든 것이 여유있고 부하게 돌아갔으나, 오히려 이것이 한국 경제의 균형을 파괴하고 자활의 능력을 잃게 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한국인(상), 57~58쪽)

당시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공범관계**를 희연은 ‘여권수속’과 ‘장관추천서’ 사례로

증언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소위 ‘점심값’을 준다.

희연은 지난해 여권 수속할 때의 일이 떠오른다. 이것은 그녀가 사회 현실에 부딪힌 최초의 일이라 충격이 컸다. 신원조사를 나온 형사가 그녀에게 전 주소와 6.25 때 거주지를 묻고, 유학기간과 목표 등에 대해서 대충 알고 나서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희연은 그 저의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웅숭한 대접에 그치었다.

형사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돌아간 후, 점심값 묵살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보복으로 돌아왔다. 용공상상이 농후한 조서가 시경에 올라간 것이다.

이 사실은 안 친구 오빠가 시경에 말을 해주어 결국 무사히 통과 되었으나, 희연은 이때 사회의 실정의 어느 단면을 목격하고 서글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문교부에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을 입증하는 의례적인 장관 추천서를 받을 때, 그녀는 구비서류를 다 제출했건만 결재 도장까지 맡기가 역시 어려웠다. 희연은 만저번의 낭패를 참고로 하여 계원에게 점심값을 선뜻 집어 주었다. 국장, 과장의 부재를 핑계로 차일피일하던 결재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나 그것이 그녀를 더 슬프게 하였다.

이것은 이미 어느 한사람에게 그치는 일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 부패요, 공범에 속한다.

- (한국인(상), 58쪽)

사회 부패는 모두가 공범이라고 지적할 만큼 사회 불안정과 상업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한 분위기다. 특히 음성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자선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구호물자를 둘러싼 부정이 고아원 경영자와 목사, 민간구호단체의 물자부 직원간에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공모는 이미 상식에 속하고, 이것은 급기야 음송 거래의 범람을 가져온다. 이런 부수입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막연한 하급관리의 생애, 부조리한 사회상, 그것만 해도 벌써 자유당 말기 때의 일이다. 민주당 집권의 지금은 어떠한가?

일본 자본가에 넘어갈 뻔한 중석의 중석불사건, 수표로 거래되는 장관직, 부정축재와 결탁한 정치 자금의 색출, 실직자의 범람 등 부패한 정치, 경제난 사회의 혼란은 마찬가지다.

자유당이 만든 정치 풍토를 그대로 이어받아, 같은 수법의 그 동안 야당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결핍을 매우기에 여념이 없는 집권자들은 4.19 혁명의 의의를 이미 몰각하고 있었다.

- (한국인(상), 58~59쪽)

사회 부정은 정치불신과 상응하고 있었다. 생존 갈림길에 서 있는 서민층의 절실한 요구를 정치는 외면하고 있으며, 제2공화국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한다.

집권자들은 민중과 유리되어 권력을 위한 당이나, 당리당락을 위한 투쟁이나, 힘겨루기를 위한 놀음을 한다. 제2공화국도 결국 이 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은 이에 벌써 실망하고 있다.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군소정당의 난립, 수백만환으로 흥정되는 매관매직, 일주일 마다 교체 되는 내각, 신입한지 일주일도 되어도 정책답화문 하나 발표하지 못하는 불발탄 장관, 권력의 대립으로 갈라진 구파, 신파에다 신파의 노장파와 소장파. 그런가 하면 남북협상론의 대두, S당의 중립국 제안. 이 혼란과 무질서를 타고 책동하는 간첩. 느느 것은 실직자 뿐이고 데모만 연속될 뿐이다.

- (한국인(상), 172쪽)

요약하면, 『한국인』에서 1960년대 초반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위기 구조의 피폐한 상황 아래 정신적, 심리적 인물로 가득찬 공간이라고 하겠다.

미국 유학생 인텔리의 욕망과 갈등

『한국인』은 1960년대 미국 유학을 갔다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유학생의 애환, 정신적 위기 의식, 이상과 현실의 괴리, 미국 유학의 불구성, 국적 부재의 이방인으로서 동포에게서 초차 따돌림 당하는 유학생의 위기 의식, 인재 소화불량증의 1960년대 사회상황 등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 이유가 미국문화와 한국 전통문화의 차이가 핵심요인으로 잘 드러나게 묘사되어 있다. 서울은 이런 미국 유학생들이 활동하는 주요 중심무대로 서울거리의 배회와 호텔 지하 바와 다방 등의 폐쇄적 공간에 스스로 감금된 인물들이 몸부림치는 도시로 일관되게 그려져 있다. 유학생들의 아지트인 '초원다방' 묘사를 살펴보자.

대꽃집이 즐비한 무교동 뒷골목의 비좁은 구석에 초원다방이 있다. 눈에 띄는 장식도 없이 허술한 이 다방은 마치 가꾸지 않은 화원처럼 스산한 느낌을 준다. 흙이 묻어나는 사면벽과 찌그러진 의자에 어울리는 낡은 커튼 등. 스테레오 스피커 옆엔 오래된 베토벤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다.

이 곳에 미국 유학생들이 수시로 아는 얼굴들을 찾아 나타난다. ... (중략) ... 초원다방엔 아직 직업을 잡지 못한 유학생과 시간제 직장을 가진 유학생들이 벌써 나와 앉아 있다.

- (한국인(상), 80쪽)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유학생 인텔리들의 문제점은 암담한 현실이며 또한 서구문화와 보수와의 힘겨운 갈등이다. 이것의 결과는 부부파경으로 나타나며, 그것의 원인은 전통과 반전통의 대립에서 오는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시대현실이 결정적 원인이다. 유학생의 국내 현실적응 어려움을 묘사한 부분이다.

문회는 유학생들의 이런 고민(실업, 파트타임 *필자 주)을 해결하는 일이 솜한 실직자의 문제와 더불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위정자들의 방관이 무엇보다도 안타깝다. 말뿐인 구미유학생 직업 선도회는 액면 그대로 유명무실. 인재의 효용가능성이 뻥하기 때문이다... (중략) ... 한국사회에서 암암리에 돌림을 받는 외롭고 피곤한 영혼들이 모여서 위안을 주고 받는 곳 초원을 누군가 가로왈 한국의 이방인 아닌 이방인 지대라고 하였다

- (한국인(상), 80쪽, 91쪽)

『한국인』의 기본적 술부는 문회와 희연, 관희와 헤미, 한선과 소라 세 쌍의 인물들이 비정상적인 애정관계를 중심으로 부부행위자 상호간의 사랑과 증오, 대립, 마음의 변화, 그리고 파경사건 등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대학원은 중퇴했지만 상경학을 전공하고 귀국한 문회는 외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업도 하는 인물이다. 문회는 미국식 실용주의 사고와 사회제도에 익숙해 있으며 정도 이외에는 어떤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다. 동시에 향토적인 것에 향수를 느껴 유학을 중도에 포기할 만큼 한국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문회의 정신과 자세는 완전히 전근대적이다. 관희와 헤미의 관계에서도 전근대적 사고가 나타난다.

『한국인』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은 외면상으로는 아메리카니즘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핵심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면서 여성을 종속적인 보조자로서만 인정하려 한다. 이에 반해 여성인물들은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경제생산은 남성이 맡고 가정은 사적 영역으로 주부가 중심이 되는 성별 분업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핵가족화를 열망한다.

희연은 헤미가 살아보기도 전에, 그녀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헤미는 관희 이외의 의무도 어떤 부자유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 (중략) ... “난 블론디 같이 살고 싶어요. 말하자면 부부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유머와 위트로 명랑하게 이끌어 가는 가정 말이에요”

- (한국인(상), 166쪽)

지식인의 방향과 정체성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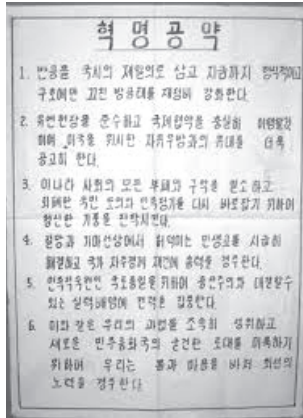




『한국인』에서 한국 사회의 모든 부패와 냉소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4·19 혁명의 의미에 대한 망각이다. 상이용사들의 남북학생회담을 반대하는 데모 앞에서 노인은 이를 거리의 다반사로 치부해 버리며, 젊은이 역시 어느 정당이 정치를 하든 똑같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저밥 세끼만 잘 먹게 해준다면 그게 구세주”라는 말에는 생존을 위협받는 대중들이 어떻게 정치와 멀어졌는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국인』에서 사실상 4·19 혁명의 정신적 봉고를 상징하는 존재는 ‘도수’다. 도수는 일선 기자로서 4·19 혁명에서 그의 동료들이 빗발치는 총탄을 맞고 술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목격했고, 정의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몸소 역사적 대혁명의 와중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4·19 혁명 1주년이 막 지난 지금, 도수가 느끼는 것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감하지 못하는 민중들의 지리멸렬한 감정뿐이다. 한국의 “발육 부족의 구겨진 민주주의” 아래 도수는 어떤 정신적 신조나 모랄을 모두 버리고 위악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미국 유학생을 아니꼽게 생각하면서도 미국 유학생인 쉰한을 열망하는 모순된 감정 속에 있고, 5·16군사 쿠데타 이후 주체세력이 된 대령 남편을 둔 경숙과 불륜 관계를 즐기며 타락한 면모를 보인다. 한국인은 그간 “4.19 이후 사회의 혼란스런 풍속도를 파노라마적”으로 그리며 “불구화된 남성성”을 보여주는 소설로서 읽혀왔다. 소설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경제 체제를 이상향으로서 선망하면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를 경계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민족주의를 작동시키는 양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혜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경제 원조가 한국에서 부패로 귀결되는 면모와, 남성 가부장의 호의적인 자선이 병리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은 절묘하게 겹쳐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4·19와 5·16을 나란히 바라보며, 결국에는 이 사건들로 한국 사회의 부패상이 더 심화되었음을 상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명은 경제 정책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경제 의식에 대한 새로운 각성 없이는 미국에 의지해 사는 후진국가의 운명을 영원히 면하지 못하리라는 견해는 이 소설 안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주장이다. 한국의 후진성이 경제가 아닌 정치의 지배 때문이라는 관점은 미국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문화나 쉰한이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각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그 대척점에 놓는 시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소설에서 ‘아메리카니즘’의 환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 중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증여의 맥락을 파헤치는 것이다. 뉴욕 총본부에서 보낸 구호물자는 한국의 S민간구호단체를 통해 뇌물에 따라 분배된다. 구호물자가 한번 입하될 때마다 거래되는 수표는 이를 담당하는 물자부 차장에게 집 장만은 물론이고, 앞으로 몇 년간은 놀고 먹을 수 있는 부정부패의 자금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소설은 이 문제를 비단 한국에만 국한시켜두지 않는다.

“하긴 그들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라든가 교야에 대한 구호 사업이 국제정책이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지만 잉여 생산물의 처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맞았어요. 자국의 경제 정책상 필요해서 하는 일이니깐 그다지 감지덕지할 것도 못 되지. 말하자면 구호나 경원은 자국의 안전 방어를 위한 자유진영의 정책이 되면서,

잉여 생산물로 인한 자국 내의 디플레이션을 막는 방법도 되니까. 고아들을 위한 구호의 명분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그래야만 새로 물자를 구입하여 유통하게 되니까. 기독교 신자들의 휴머니즘을 자극하고 동시에 자기 위안도 되는 것이지.”

- (한국인(상), 116쪽)

애초에 미국의 저개발국가 원조와 고아에 대한 구호 사업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잉여 생산물의 처리”를 위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의 휴머니즘을 자극하고 동시에 자기 위안”이라는 점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이 대화는 미국을 일종의 경제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보는 것을 지양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무용하기에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잉여 생산물’ 중 하나는 바로 엘리트 유학생들이다. 소설은 수시로 그들의 패잔병 같은 실업 상태와 무력한 감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불안 속에서 열등감이 태동되는 것을 보여준다. 유학하고 돌아온 지식인 남성의 우울과 히스테리는 특히 문회를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미국에서 적응할 수 없었던 반감으로 서구적인 감각과 합리성을 철저하게 증오하며, 전근대적인 것을 고집하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모성을 내세워 집요하게 구속해오는 어머니를 떨쳐내고 싶어 하면서도, 어머니가 베푸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애정을 아내 희연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문회를 ‘남자 히스테리증자’로 보이게 만든다. 유약한 신경줄의 소유자인 그는 실제로 자주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이혼을 선언하는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는 졸도까지 한다. 그런데 미국에 반하는 전근대성을 지향하는 문회의 사적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기만적인 경제적 증여 방식이다. 그러나 문회는 여자 앞에서 느낀 좌절감의 경험이 결혼 생활에 부담을 가져오는 것을 채 깨닫지 못한다.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과의 본능적인 융합이나마 그들에게겐 어려운 것도, 그는 자신이 결함투성이일 수록 부족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 희연이가 밉고 약점을 감싸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럽다.

그는 모든 중량이 그보다 훨씬 부족한 동성 앞에서 비로소 안정을 느낀다. 친구들로부터 ‘이디오피아 부대’라고 술한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우한 많은 부하를 거느리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그보다 월등한 사람들에게 잔인해지는 것과 달리 이들 앞에서만은 관대해진다. 그는 얼마간의 자선으로 느끼는 충족감을 자기 나름의 휴머니즘으로 자위하기에 가난한 마음이 흐뭇해지게 마련이다.



문휘는 자신에게 지성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아내 희연과의 관계 속에서 느낀 절망감과 무너진 자존심을 자신보다 어리고 사회적 계급이 낮은 영규와의 동성애를 통해 보상받고자 한다. 그런 문휘의 동성애는 호혜적인 증여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문제적이다. 그는 주변의 불우한 남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술값을 담당하는 등의 ‘자선’을 베풀으로써 충족감을 느끼지만, 한선이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처럼 그의 자선의 실상이란 “교활한 우월감이요, 자기만족”으로 “일그러진 미국 유학생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기만적 휴머니즘인 미국의 구조 물자가 한국의 경제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부패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문휘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물질적 증여는 그의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동성애로 이어진다. 소설은 부도덕한 증여 방식의 공적인 맥락과 사적인 맥락을 교차시키며, 1960년대의 한국 사회 속에서 증여가 호혜성을 전제로 한 상호 부조의 관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해낸다. 공공선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내수 정치를 위해 작동하는 미국의 구조사업과 친구들을 향한 호의를 내세우지만 나르시시즘적 향유에 가까운 문휘의 증여는 불편하게 겹쳐진다. 아내인 희연은 열등감을 동성애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문휘의 “애매모호한 혼란과 불확실성과 착란”이 ‘아메리카니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한국의 상태라고 분석한다.



소설 속에서 한국의 문제는 ‘아메리카니즘’ 아래 탈각된 가부장적 남성성을 지닌 존재들로 드러난다. 소설에서 동성애에 몰입하는 것은 문취만이 아니다. 한선 역시 미국 유학생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실업자가 된 패배감을 미군 장교의 동성애 파트너가 되기를 택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아 해결하고자 한다. 5·16을 일으킨 대령 남편을 둔 경숙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직위를 획득한 도수는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국인들의 외래품 기호병”을 이용해 원조물자와 생산품 원료에 투기성의 부당 거래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 모든 문화가 미국식으로 흡수되는 ‘아메리카니즘’ 아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증여하는 이 남성들의 모습은 여성을 교환·증여함으로써 유지되어온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균열을 낸다. 물론 이 남성들의 동성애나 매춘은 사회에서 남성이 갖는 공고한 위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동성애자를 두고 ‘여자 같은 남자’라는 오랜 고정관념은 남성동맹 내부에 동성애자를 허용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기실 ‘남자다운 남자’를 애정하고 이상적 인물형으로 지향하는 것은 남성동맹을 이루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동성애와 남성동맹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손장순의 한국인은 한국의 남성동맹이 아메리카니즘 아래 열등감을 동반하며 병리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는 여성과 여성적인 남성을 타자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임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독립을 피하는 것은 바로 희연이다.

희연이 문화와 이혼을 성사시키며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계층 상승을 위해 장관의 딸과 결혼하려 했던 도수가 불륜 상대였던 경숙의 총에 맞아 죽는 직후라는 것은 중요하다.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대변하던 4·19 혁명이 어떻게 경제적 부패상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도수의 죽음은 ‘혁명의 경제화’가 가져온 부정적 고리를 끊어낸다.

희연은 비참하고 위악한 자에게 위선적이고 교활한 동정을 내비치는 한국의 풍토적 심성을 비난하며, “어떤 역경에서도 열등감 없이 자신과 금지를” 추구하고자 한다. 문화와 운명의 연대성을 끊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희연의 자립은 사실상 ‘아메리카니즘’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다.

소설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인물들은 모두 파괴적인 길을 걷는다. 유학을 다녀오고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한 많은 남성인물들이 실패를 맞으며, 여성들 가운데서도 무너진 미국 유학에 대한 열망으로 자기혐오에 빠졌던 헤미는 토머스 조로부터 사기 당한 후 맥스원에게까지 배신당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외국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아 여권까지 나왔는데도 파리 유학을 포기했던 희연은 자신의 주변인물들을 파괴했던 열등감과 물질주의가 모두 아메리카니즘으로 귀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이로부터 거리를 두는데 성공한다.

제목부터 필연적으로 민족의식과 연결되는 손장순의 한국인은 4·19 혁명 이후의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원조 정책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성인물의 동등한 시민권을 요청한다. 희연은 미국의 영악한 경제적 합리성에 반해 위악적인 가부장적 비합리성을 고수하는 남편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고독과 모욕감 속에서도 자아를 지켜낸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이라는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언제나 여성에게는 강제된 복종이 동의로 해석되어 왔기에, 희연은 이혼을 통해 '동의의 거절'을 관철시킴으로써 비로소 이성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지위를 획득한다.

한국에게 미국이 그렇듯이, 여성에게 남편은 한때 생존을 위한 현실적 타자였으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별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여성이 폭압적인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일이 4·19혁명이 경제화 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유의 정신을 찾는 일과 무관하지 않음을 설파하는 한국인은 4·19혁명과 젠더 문제가 교차되는 소설로서 다시 진지하게 독해될 필요가 있다.

소설은 시민권의 문제가 비단 여성에게만 결별과 투쟁으로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경제적으로 속박된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맥락 아래서 한국 남성에게도 역시 새로 획득되어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때 여성 시민권은 한국의 취약한 경제적 주권을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남성의 시민권이 곧 보편적인 한국의 시민권으로 등치되고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지만, 작가는 여성의 시민권이 한국(남성)의 시민권에 단순히 포섭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료하게 자각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커다란 틀로 묶인 채, 여성 시민권은 남성 시민권의 획득과 협력적 긴장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해내는 것이다.

희연은 결혼생활이라는 실제의 삶을 경험하면서 애초에 결혼에 대해 지녔던 자신의 이상이 일종의 판단착오였음을 시인하게 된다. 결혼 전 희연의 말대로 결혼이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더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녀가 절감하게 되는 환멸은 현실과 맞부딪힌 끝에 새로운 차원의 이해로서 의미가 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이 온갖 모순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은 고스란히 한 여성으로서 자신 삶에서 주체가 되어 맞부딪히면서 모순과 한계를 절감한 희연의 인식으로 수렴되었다.

여기에도 아메리카니즘이구나. 상송조차 재즈화 되어 가다니. 아메리카니즘이란 이 거센 조류속에서 어지럽게 자라온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어쩌서 우리는 자기의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나. 자기의 것이 풍부한 사람 만이 남의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강한 자기 확립이 타협에 빠르듯이. 문화 같은 사람이 한국의 상태인지도 몰라. 그 애매모호한 혼란과 불확실성과 착란 같은 것이.

- (한국인(하), 190쪽)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인은 곧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한계를 노정하는 인간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불행을 통해 성숙해진 희연은 걸인의 모습을 통해 한국인의 비애가 가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명문여고와 한국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희연은, 그동안 자신의 내부분제만 몰두해 왔지만 작품의 결말 부분에 와서야 비로소 서울의 거리에 넘쳐나는 빈곤의 실제 직시를 통해 사회적 모순을 깨닫는다. 따라서 『한국인』은 단순한 세태의 관찰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려는 탐색의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자화상’을 그리고, **흉측한 상처와의 대면을 통해서 만이 상처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작가의 기본생각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희연이 지하도로 해서 소공동까지 걸어왔을 때, 살풍경하게 음산하던 날씨가 이미 저물어 거기 시작한다.

그녀는 조선폰텔을 따라 무연히 길을 내려가다가 그녀의 눈을 이끄는 광경에 발걸음을 멈춘다. 때 묻은 어린아이를 안은 남루한 여인이 조선폰텔의 담을 끼고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 (중략) ... 희연은 핸드백을 열고 백원 한 장을 꺼내어 여인의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희연이 아픔을 누르며 열 발작도 못 걸었을 때이다. 깡통을 차고 까맣게 그은 가슴패기를 이 추운 날에 그대로 내놓은 채 거리를 걷고 있는 걸인 소년을 또 발견한다... (중략) ... 희연은 소년을 데리고 근처의 우동 집으로 들어간다... (중략) ... 희연은 없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되는모순이 오늘날라 절실하게 느껴진다. 같은 인간으로서 걸식을 해야 하고 거의 동물적인 최하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순을

- (한국인(하), 320~322쪽)

희연의 이혼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열등감으로 무너져 있는 한국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중 억압을 탈피하는 것이다. 문희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희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국의 비참한 실상이다. 어린아이를 안은 남루한 여인이 조선회관의 담을 끼고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은 예리한 아픔으로 다가오고, 강통을 차고 가슴패기를 추운 날에 그대로 내놓은 채 거리를 걷고 있는 걸인 소년의 비참함이 눈에 밟혀 근처에서 우동을 사 먹인다. 희연이같은 인간으로서 동물적인 최하의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모순된 현실을 자각하는 결말은 일종의 성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여성 이가족 안의 구성원으로써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가능해진 감각이기도 하다.

희연과 결별 후 꽤 시간이 지난 시점을 보여주는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학생 데모대의 아우성을 배경으로 문희가 강인한 저항력의 생성과 함께 한국을 위한 삶을 다짐하는 모습에는 한국(남성)의 자립적인 시민권에 대한 희구가 비친다.

손장순은 “산다는 것은 결과가 또 하나의 상실을 가져오더라도 애환의 집약이며, 삶은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반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작가의 말에서 밝혔다. 지난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자고 소설을 마무리 지었다.

문희의 손에 힘이 불끈 쥐어지면서 새로운 의욕이 솟아오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한국을 떠나지 말고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

삶에 대한 참된 의욕은, 환희는 삶의 절망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비애를 딛고 일어서는 강한 의지.

문희의 얼굴에는 붉은 생기가 홍조처럼 떠돈다.……

- (한국인(하), 334쪽)

▶ 기타 코스

안국동 로터리



〈한국일보사에서 바라본 안국동 로터리 모습. 멀리 중앙에는 옛 유진산 총재 신민당 시절의 신민당사가 보인다. 신민당사 뒤에 수운회관 건물이 보이고 그 옆에는 종로경찰서 건물이다. 9시 방향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서 있던 안국빌딩. 그 앞에는 육교도 보인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옛 안동별궁터), 풍문여고 옛 교문의 모습과 풍문여고 모습. 풍문여고는 2017년 까지 이곳에 있었고 2018년엔 내곡동으로 옮김. 서울시는 이 자리에 공예박물관을 건립중이다. 풍문여고 터는 1881년 고종이 안국방의 소안동에 지은 안동별궁이 있던 곳으로,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공녀들의 숙소로 사용됐다〉



정독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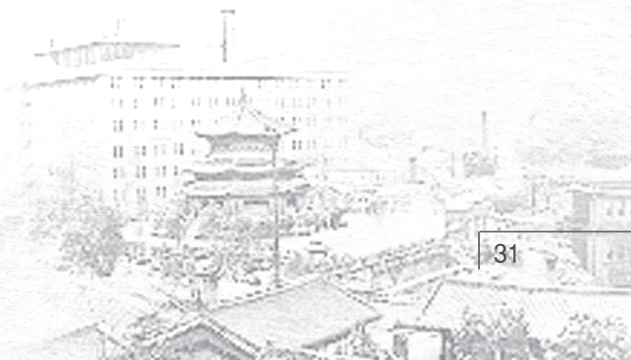
〈옛 경기고교, 1970년대 강남으로 이전, 1977년 정독도서관으로 개관〉

서울 종로구 화동 옛 경기고교(구 경성제일고보) 자리에 문을 연 서울시립도서관. 50만여 권의 장서와 1만7천여 점이 넘는 다양한 자료 소장. 조선시대 사육신 성삼문과 청백리 맹사성의 집터가 있던 곳이며,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 김옥균이 태어난 곳이다. 진경산수화의 백미로 꼽히는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비운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 정경을 생생하게 표현) 기념비가 있다

서울교육박물관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교육의 변화 과정을 전시〉



윤보선 가옥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과 가회동의 경계에 위치한 ‘안국동 윤보선가옥’은 1870년대 지어진 주택으로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거주한 집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윤보선은 4,19혁명 이후 이승만이 물러나고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1960. 8. ~ 1962. 3.), 손장순의 소설 『한국인』에서 가장 묘사가 많이 되고 있는 시기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정당인 한국국민당의 창립을 함께한 장소로 1950~1970년대에는 야당의 사무실 겸 회의실로 사용되었다. 윤보선 가옥은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대통령이 젊은시절 자주 왕래했던 곳으로 ‘한국 야당의 회의실’이라고 불렸다.

건국준비위원회 터(보헌빌딩)



여운형은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발족시켰고, 1945년 8월 16일 오후 1시 서울의 휘문중학교 교정(현재 현대건설 사옥)에서 앤도와의 회담경과 보고연설회를 개최하였다. 건준 부위원장 안재홍(安在鴻)은 한·일 두 민족의 자주호양을 요망하는 담화를 방송하면서, 경위대 편성을 넘어 정규병의 무장대를 편성하여 질서를 도모할 것과, 통화와 물가에 대한 신정책을 수립하고 근본적인 정치운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들은 서울 풍문여자중학교에 사무소를 두고 건국준비사업 선전공작과 치안활동을 개시하였다.

8월 17일에는 건준의 중앙조직이 발표되었는데, 여운형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안재홍, 그 외 5개부서로 총무부장 최근우(崔謹愚), 재무부장 이규갑(李奎甲), 조직부장 정백(鄭柏), 선전부장 조동호(趙東祐), 무경부장(武警部長) 권태석(權泰錫)으로 진용을 갖추었다.

인천 김성수 옛집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Memorial facilit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김성수선생 옛집(故居)

The Old House of Incheon Kim Seung-Su

관리번호 11-1-9

소재지 : 종로구 계동 132번지

(3호선 안국역 대동정보산업고 방향 1km)

관리자 : 재단법인 인천기념회

규모 : 대지 1,256㎡, 건물 347㎡

Superintendence No. 11-1-9

Site Address : 132, Gye-dong, Jongno-gu

(Located approximately 1km in the direction of

Daedong Information Industrial High School at Anguk

Station of the Subway Line 3)

Superintendent : Incheon Memorial Foundation

Size: Land area 1,256 m², building area 347 m²

교육자이며 경제인이며 언론인으로서 민족 교육과 민족 자본 육성 및 언론을 통한 민족 계몽 운동에 주력하였던 인천(仁村)이 거주하던 집이다.

이 집은 1918년 김사육에게서 인수하였으며 2·8독립 선언준비, 3·1운동의 초기 준비 단계 등에 항일 독립 투사들이 모인 밀회의 장소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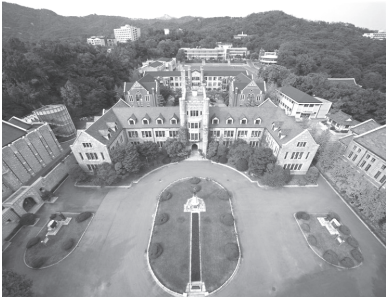
또한 중앙고보, 보성전문, 동아일보 설립을 구상하는 등 일제의 강점 기간에 독립 운동의 배후 지원 및 민족 교육, 민족 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뜻깊은 장소이다.

This was the residence of Incheon. He was an educator, businessman, and journalist who devoted himself to national education, the promotion of national capital, and national enlightenment movement through journalism.

This house, which Incheon took over from Kim Sa-Yong in 1918, was used as a place of secret meetings among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during the preparatory stage of the February 8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early stage of the march 1st Movement.

At this historic pla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 Incheon put efforts to support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behind and promote the spread of national education and culture by planning the establishment of Jungang High School, Boseung College, and the Dong-A Ilbo newspaper.

중앙고등학교



1926년 6월 10일 조선 순종의 인산일 즉 장례일을 기해 6.10만세 운동이 일어남. 6.10만세운동의 중심에 있던 서울 중앙고보(중앙고교). 교내에 6.10만세운동 기념비와 3.1운동 책원비 그리고 근대 건축물을 함께 볼 수 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이 1915년에 중앙학교 인수 후 1917년 현 위치에 새 학교 건물 건립하였다. 1920~1930년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삼청공원



삼청공원은 호젓한 산책로에 주위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고려 시대의 충신인 정몽주와 그 어머니의 시조비가 있으며 공원 입구에서 산책로를 따라 계곡을 올라가면 삼청공원 약수터가 나온다. 시조비에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간밤에 흉흉한 꿈을 꾸어 아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말리며 불렀다는 노랫말이 적혀 있다.

총리공관



〈국무총리공관(國務總理公館)〉 서울 공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5 (삼청동 106-11)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관저이다

조선시대 태화궁(太和宮) 자리였다가 일제 강점기에 민규식 자택, 경성전기주식회사 관사 등으로 사용했고 1945년 광복 후에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인수했다. 1948년부터 1961년까지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으며 1961년 5월 이후부터 국무총리공관으로 사용하는 등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로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

청와대 무궁화동산



대한민국 현대의 물굽이를 바꾼 10·26의 드라마가 벌어진 곳은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던 궁정동(宮井洞) 안가였다. 궁정동 안가는 중앙정보부장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술자리를 하던 만찬동(나동) 등으로 되어 있었다. 무궁화 동산은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를 국민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고자 안가(안전 가옥)를 헐어 내고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쉬어 가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 내에는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있으며 특히 무궁화 동산의 이름에 걸맞게 무궁화 꽃이 많이 있다. 무궁화 동산 맞은 편에는 분수대가 있으며 분수대 중앙에는 봉황상이 있으며 사면에도 조각상들이 놓여 있다. 청와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배경삼아 기념 촬영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도서 및 논문〉

- 손장순, 『손장순 문학전집 1,2 - 한국인 상·하』, 푸른사상, 2009
- 강지희, “4.19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 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8호, 2019.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 김영미, “육망의 좌절과 시기의 감정: 1960년대 한국엘리트의 감정구조-손장순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46집, 2017
- 김우영, “여성 지식인의 외부자 되기와 그 임계(臨界): 손장순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37호, 2016
- 방민호외 공저,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이지현, “손장순 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2
- 임현영, “손장순론”, 『손장순 문학전집 2』, 푸른사상, 2009, PP.361~390
- 전혜자, “현대소설의 도시생태적 독법이 대한 연구 - 손장순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손장순 문학전집 2』, 푸른사상, 2009, PP. 341~359

〈인터넷 검색〉

- *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 네이버 블로그,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자료 (2019.11.10.~11.25)
- * 구글/ 네이버 이미지 검색 자료(2019.11.10.~11.25)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심흥식



- (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초빙교수,
(정치학 박사,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
- (현)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대외협력본부장
- (현) 서울도시문화연구원 도시문화지도사
- (전) 공보처, 총리 공보실, 국정홍보처, 경기도 홍보기획관(1994~2011)
- (전) 성균관대, 한양대 겸임교수.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인천대 강사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에서 선착순 마감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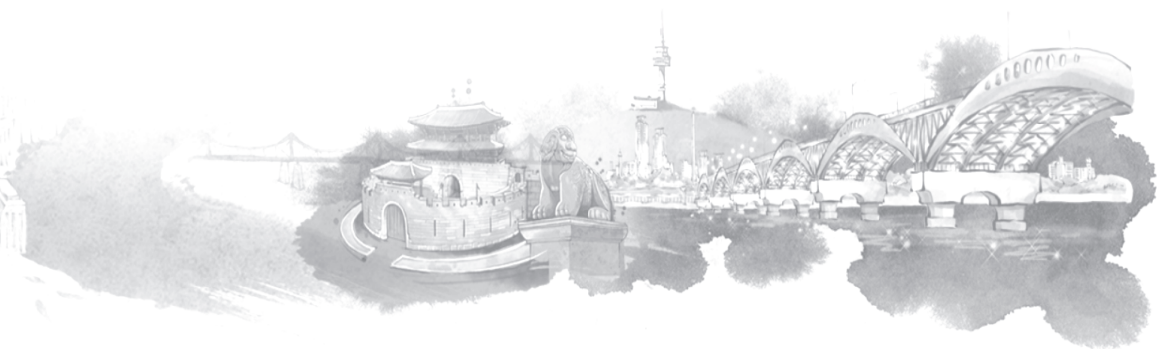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생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여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